



원효 스님 일대기 한 눈에 좌악~

경산 제석사, 탄생에서 열반까지 담은 팔상탱화 점안

원효 성사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형상화한 팔상탱화가 원효 성사의 탄생지인 경산 제석사(주지 적연)에 봉안됐다. 제석사는 5월 30일 원효성사 탄생 1389주기를 맞아 봉행한 다례제에 때맞춰 원효 성사전에 팔상탱화를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한 것. 원효 성사 팔상탱화는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이 2000년 부임해 온 이후 속신사업으로 6년간 고심한 끝에 봉안하게 된 순수 창작 불화다. 적연 스님은 원효성사의 일대기에 맞춰 탄생, 출가, 득도, 무애, 설법, 요석공주와의 인연, 선정, 열반의 8가지 그림을 구상해 탱

화로 표현했다. 적연 스님은 각 그림마다 삼세를 표현하고, 원효 성사의 수행과정과 무애의 가르침이 각 단계마다 잘 형상화될 수 있도록 채색 하나에까지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원효 성사의 팔상탱화에서 원효 성사는 모두 금색으로 표현하고 연꽃좌대에 배치해 깨달음을 표현했다. 원효 성사의 탄생을 표현한 첫 번째 탱화는 제석사의 밤나무 아래에 탄생한 아기 원효 성사를 중앙에 묘사하고 위에는 도솔천을 묘사해 도솔천에서 내려온 원효 성사를 나타냈고, 아래에는 원효 성사가 출가해 설법하는 장면을 한꺼번에 묘사해 삼세를 표현했다. 두 번째 탱화는 천상의 축복을 받

으며 출가해 계를 받는 장면을 묘사했고 세 번째 탱화에는 의상 대사와 함께 중국에 가려고 길을 가던 중 무덤 속에 있는 해골바가지의 씌은 뱀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1389주기 탄생 다례제 및 팔상탱화 점안

식을 봉행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원효 성사의 원력"이라고 밝히고 "원효 성사가 탄생한 도량에서 보다 복되고 좋은 인연으로 원효보살님의 법음이 울려 퍼져 흥겨운 날이 날마다 지속되길" 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성수 스님과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원효 성사의 가르침과 무애의 삶을 기렸다. **배지선 기자** jeun@buddhapia.com

'참좋은유치원' 인허가 부결 논란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공사 부설 참좋은유치원의 인허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5월 29일 개최한 유아교육진흥위원회에서 참좋은유치원 후방에 모델 등의 유해상가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허가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유치원의 완공을 앞둔 영남불교대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5월 31일과 6월 1일 총동원의 이름으로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 오전 11시 대구시 교육청에서 참좋은유치원의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영남불교대학은 1, 2차 성명서를 통해 허가에 별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착공했으며, 처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초대형 유치원을 지으려 했으나 지역 사업유치원연합회의 반발을 고려해 달라는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최종 7개 학급만 운영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제시했는데 완공단계에서 **배지선 기자**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참좋은유치원 전방 50m 이내의 절대 정화구역에 있는 무도학원과 단란주점 등 2개를 인수해 폐쇄했으며, 세계최고의 유치원 건립을 목표로 생태공원과 전문문화체험장 수영장까지 갖춰 놓았는데 유치원건립으로 인한 장단점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방에 모델 등의 유해상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남불교대학 총무 밀려 스님은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도 상대정화구역내의 유치원은 심의를 통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가 처분을 유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지를 저버린 처사며, 사업유치원의 압력에 의한 태도 아니면 종교편향행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가 촉구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좋은인연 불교대학' 개강 6월 15일...수시접수 가능

대구불교방송 좋은날 좋은인연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불자들의 신행상담을 맡고 있는 범수 스님이 대구불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6월 15일부터 대구 반월당 동아쇼핑 맞은편 동아빌딩 4층(동아빌딩 4번 출구 쪽)에서 좋은인연 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좋은인연 불교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4학기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수경을 비롯한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전과 개론서를 병행해 강의한다. 대구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불교의 생활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좋은인연 불교대학은 논강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시접수가능하다. (0505)854-0108 www.savaha.or.kr

의성노인복지관 안계분관 기공



의성군노인복지관(관장 탄하)은 5월 26일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 의성군사업연합회회장 범공 스님, 정해걸 의성군수를 비롯한 노인복지 관계자와 지역 어르신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안계분관 착공부지에서 안계분관 기공식을 거행했다(사진). **배지선 기자**

이에 따라 안계분관이 준공되는 9월부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의성군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서부지역 어르신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안계분관은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470명 대지에 연건평 13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오는 9월에 우선 1차 준공을 하고, 내년에 2층과 3층 증축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불교웰빙문화체험장 개실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이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매주 목요일마다 불교 웰빙(well-being)문화체험 강좌를 오전반(10시)과 저녁반(6시 30분)으로 나눠 관오사 불교사회교육원 교육관에서 개설한다. 강의는 발우공양의 정신, 찬불가 교실, 사물체험, 위빠사나 수행법, 불교와 차문화, 내가 만든 108염주 등 6강에 걸쳐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불교사회교육원은 "불교 웰빙(well-being)문화체험 강좌가 불교문화 속에 숨어있는 참된 웰빙(well-being)의 의미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053)471-6640 **배지선 기자**

108화엄순례단원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에서 활동하는 '고운암실천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자 및 영주지역 내 불자를 대상으로 108화엄순례단원을 모집한다. 108화엄순례단은 내년 5월까지 1년간 전국 대표 사찰 108곳을 순례하면서 자비를 실천할 예정이다 6월 14일 불보살님 불도사로 첫 순례를 떠날 계획이다.(054)633-6415 **배지선 기자**

뛰고 걸으며 "사랑해요 문화제"

경주남산길마라톤대회 1500여명 참가 '성황'

제3회 경주 남산 산길 마라톤 대회가 한국불교마라톤협회(회장 진오) 주최로 5월 28일 경주남산 통일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이른 아침부터 1500여 명의 마라톤마니아와 경주시민과 불자 등이 참석해 경주 남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 지난해부터 경주남산 문화제 훼손을 두고 반대했던 시민단체장들도 참가해 문화제 훼손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줬다. 대회는 하프코스과 10Km 마라톤, 10Km 산길 걷기가 모두 남산 산길 코스에서 열려 불교문화유산을 새롭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10Km 남산 산길 걷기 참가자들은 흙을 한 봉지씩 가져가 흙이 부족한 남산자락에 뿌려주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배지선 기자**



이날 대회에서는 최정진 씨가 하프코스 남자 1등을 차지했고, 배정임씨가 하프코스 여자 1등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인 마하부다 구미보현의집에서 대구 경북지역 외국인 노동자 150여명이 걷기 코스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배지선 기자**

대구시 "유해상가 인접해 있다" 영남불교대 허가촉구 집회 계획

대구시 "유해상가 인접해 있다" 영남불교대 허가촉구 집회 계획. 참좋은유치원 인허가 부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5월 29일 개최한 유아교육진흥위원회에서 참좋은유치원 후방에 모델 등의 유해상가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허가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유치원의 완공을 앞둔 영남불교대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5월 31일과 6월 1일 총동원의 이름으로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 오전 11시 대구시 교육청에서 참좋은유치원의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영남불교대학은 1, 2차 성명서를 통해 허가에 별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착공했으며, 처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초대형 유치원을 지으려 했으나 지역 사업유치원연합회의 반발을 고려해 달라는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최종 7개 학급만 운영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제시했는데 완공단계에서 **배지선 기자**

진신사리 · 만다라 1천여점 전시

홍천 천축사 18일 만다라 보궁 개관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와 1천 여점의 만다라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강원도 홍천 천축사(주지 동휘)는 만다라 보궁 개관을 기념해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06 홍천 해피만다라 산사 대축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대축제는 노래자랑, 전통혼례, 만다라 우리쌀사랑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회에서는 '부다가야 대담 만다라'와 관세음보살을 그린 '그린터라 만다라', 21점의 '관음의 눈동자 만다라' 등 동휘 스님과 티베트 부탄 네팔 인도 스님들이 그린 1천 여 점의 만다라가 선보인다. 특히 동휘 스님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 주민들을 위

로하고 우리 쌀 사랑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우주를 표현한 '코스모스 만다라' 중심에 '쌀'을 그린 '라이프코스모스 만다라'를 제작해 특별전시한다. 천축사는 만다라 보궁 개관에 앞서 6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만다라 작품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만다라 보궁을 개방한다. 동휘 스님은 "만다라가 새로운 불교문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이를 통해 만다라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대중선사 김영생

天醫仙 醫學
 天下第一 替醫學
 天醫仙道는 代替醫學
 天下第一의 民衆醫術

천의선도는 대적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체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사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시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적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제작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